

HYUNDAI E&C TODAY

Vol 407
2021 / 11 / 12 FRI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2021 CSR 결산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서기'를 할 때도, 지구촌을 향한 현대건설의 손길은 그칠 줄 몰랐다. 올해 현대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혜를 받은 인원은 1만2724명. ESG 경영에 힘입어 그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을 닮은 공간, 세계가 인정한 현대건설의 조경

‘2021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프로젝트 어워드’ 파이널리스트(Finalist)
‘2021 IFLA Asia-Pac Award’ 우수상(Awards of Excellence)

폭 60m, 길이 400m에 달하는 보행로 ‘바람의 길’을 따라 소나무, 배롱나무 등 빼곡하게 식재된 꽃과 나무가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다. 마치 거대한 식물원을 보는 듯한 이곳은 2020년 준공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단지는 축구장 11개 면적에 달하는 넓은 녹지를 품은 데다 대형 석가산,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최근 이 단지는 조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어워드인 ‘2021 IFLA Award’에서 아태지역 공동주택(Residential) 부문 ‘우수상(Awards of Excellence)’을 수상했다. 고객 편의를 위한 기술 개발과 예술적 감성을 담은 현대건설의 노력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 이 밖에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전문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가 주최한 에이플러스 프로젝트 어워드(A+ Product Award)에도 이름을 올렸다.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선정된 다에이치 자이 개포의 ‘3D Weaving Bench’와 다에이치 라클라스의 ‘Cloud Walk Pavilion’이 주인공. 3D 비정형 벤치는 현대건설이 전문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한 기술로, 공동주택에 3D 프린팅 출력물을 도입한 첫 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세계적인 패턴 디자이너 카렐 마르텐스(Karel Martens)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Cloud Walk Pavilion’은 마치 교외 미술관에 온 듯 일상 속에 예술을 더하고 있다는 평이다.

Hillstate River City, completed in 2020, gives its residents and visitors an impression of a giant botanical garden lined with flowers and plants. Recently, Hillstate River City received the Awards of Excellence in the residential category of the Asia-Pacific region a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IFLA) Award 2021 in the global recognition of Hyundai E&C’s effort to develop technologies for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as well as convey artistic sentiments. In addition, both “3D Weaving Bench” situated in THE H Xi Gaepo and “Cloud Walk Pavilion” in THE H La Class were named the finalists at the 2021 Architizer A+ Product Award. The freely shaped bench, for which a patent was already applied, is considered Korea’s first case in which a 3D printing product was utilized for multi-unit housing. “Cloud Walk Pavilion” wa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Karel Martens, a globally renowned graphic designer, adding museum-like artistic sensibility to the apartment unit.

UNLIMITED HYUNDAI E&C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COLUMN

경제학자가 추천하는
인문학 서적

CULTURE

OTT 추천전국시대!
나에게 맞는 플랫폼은?



1, 2 축구장 11개 면적에 달하는 조경 공간을 갖춘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3 현대건설의 특허 상품인 3D 프린팅 출력물을 도입한 다에이치 자이 개포. 4 예술적인 감성을 품은 다에이치 라클라스의 예술 파빌리온.

Agreement ceremony held to eradicate major accidents

Our company sets out to make our partner companies safer

Our company held a ceremony to agree the eradication of serious construction-related accidents with our partner companies in the head office located in Gye-dong on November 2, with the attendance of Hyundai E&C CEO Yoon Young-joon, union leader Kim Jun-ho and executives of H-Leaders. The participants pledged to put efforts into preventing major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During the ceremony, our company introduced several programs designed to provide benefits worth 500 billion won annually for partner

companies excellent in safety,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Moreover, we will increase the proportion of safety criteria for the registration of a new partner company and renewal of the existing partners from five percent to 20 percent. “H-safety wallet system” aims to provide safety points in proportion to worker’s days of working without accidents. In addition to these, the industry’s best programs for win-win growth are being operated by our company.

Our company will continue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incentive system for outstanding partner companies with regard to safety, quality

and schedule management. Moreover, we will increase the proportion of safety criteria for the registration of a new partner company and renewal of the existing partners from five percent to 20 percent. “H-safety wallet system” aims to provide safety points in proportion to worker’s days of working without accidents. In addition to these, the industry’s best programs for win-win growth are being operated by our company.

“We will provide better support for safety systems of our partner companies, creating a safe working



environment by making all-out efforts

to proactively conduct safety-related

activities,” said an official of our company.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개최

11월 2일, 계동 본사에서 진행 ... 다양한 지원 통해 협력사 안전강화 앞장설 것

우리 회사가 협력사와 함께 안전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1월 2일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윤영준 사장을 비롯해 김준호 노조위원장, 대아이앤씨 김형진 대표 등 H-Leaders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중

대재해 예방에 힘을 다짐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연

간 5000억원 규모의 안전/품질/공정 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강화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평가 강화 ▶H-안전지갑 제도 ▶협력사 안전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협력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현제 진행 중인 안전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안전/품질/공정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거래 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늘리는 방안을 꾸준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의 무재해 근무일수에 비례해 안전 포인트를 지급하는 ‘H-안전지갑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건설 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의 초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 안전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힘쓰는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yundai E&C selected as excellent company in 2021 KS-CQI

Our company has been chosen as an excellent company in the apartment category in the 2021 KS-CQI (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for two consecutive years.

KS-CQI is aimed at measuring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of call centers through telephone monitoring evaluation and customer surveys. This year,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83 companies and 34 public institutions in 52 industries. Our company received high



points in evaluation criteria such as reliability, kindness and proactivity.

2년 연속 ‘2021년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우수기업 선정

우리 회사가 ‘2021년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조사에서 2년 연속 아파트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한국DT센터에서 열린 ‘2021년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인증수여식’은 우리 회사 박인주 품질관리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KS-CQI 콜센터품질지수는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화 화 모니터링 평가’와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합해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수

준을 측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2개 업종, 183개 기업,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 회사는 평가지표 중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7년 오픈한 현대건설 고객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일관되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선진 표준화 상담시스템의 도입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 교육, 전화 예절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 회사는 2013년부터 총 6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Saudi Arabia’s first 500kv HVDC transmission line project

Our company has received a deal valued at 166.77 million dollars from the Saudi Electricity Company – Western Operating Area (SEC-WOA) to build a new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transmission line.

This project is aimed to build the 336-kilometer transmission line which links Madinah and Tabuk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kingdom, as part of the 500 kV HVDC transmission line to create an electrical grid connecting between Saudi Arabia and Egypt. The project, which will be conducted on a turn-key basis,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kingdom’s first 500 kV direct current transmission line project.

사우디 최초 500kV HVDC 직류 송전선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사우디 서부 전력청(SEC-WOA)이 발주한 1억6677만 달러 규모의 500kV HVDC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이집트 전력망 연결을 위한 500kV HVDC 송전선로 중 3구간에 해당한다. 사우디 서부 메디나(Madinah)와 타북/메디나(Tabuk/Madinah) 지역 내 총 연장 336km의 송전선 건설공사로, 설계·구매·시공 등을 포함한 일괄 도입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수주는 사우디 최초로 시도되는 500kV 직류 송전선 공사라 더욱 뜻깊다.

회사 관계자는 “직류 송전 기술은 한국에서도 아직 실증 단계인 최신 기술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것도 처음”이라며 “현대건설의 모든 기술과 시공 노하우를 총망라해 공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82년 Al Aquiq-Benisar 132kV Transmission Line 프로젝트와 타북/메디나(Tabuk/Madinah) 지역 내 총 연장 336km의 송전선 건설공사로, 설계·구매·시공 등을 포함한 일괄 도입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수주는 사우디 최초로 시도되는 500kV 직류 송전선 공사라 더욱 뜻깊다.

현대건설 배구단, 2021-2022 V리그 7연승 행진 ... 우승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

현대건설 배구단이 2021-2022 V리그 개막 7연승을 거두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11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20, 25-21, 25-10)로 이겼다. 1라운드를 전승으로 마친 현대건설은 2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승리를 따내며 승점 20을 기록, 단독 선두를 굳히고 있다.

이날 경기에선 위기의 순간마다 팀의 에이스 야스민이 22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양효진이 노련한 플레이로 15점을 보냈다. 또한 주장 황민경과 11년차 리베로 김연경은 탄탄한 수비로 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올해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난해의 부진을 딛고 탄탄한 팀으로 거듭났다. 실제로 국내 선수들만 나란히 지난 여름 KOVO컵대회에서도 우승을 거

뒀다. 현대건설은 득점, 블로킹, 서브, 공격종합 등 모든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리시브, 디그 등 수비 면에서도 뛰어나다.

강성형 감독은 “야스민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온 데다 경기를 할수록 양효진, 황연주 등 베테랑들이 어린 선수들과의 합이 좋아져 7연승을 할 수 있었다”며 “승리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Award ceremony of the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held

An award ceremony was held for winners of the 2021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on October 28.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prize-giving ceremony was held online with the attendance of about 50 applicants and our employees.

The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marks the 14th anniversary this year. Among the 157 entries, a total of 15 winners were selected, and the excellent award went to the “water treatment technol-



ogy using composite catalysts to reduce nitrogen” submit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2021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1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0월 28일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을 비롯해 기술공모전 참가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시행된 국내 최고의 건설기술 공모전이다. 올해는 141개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총 157건의 기술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아이디어 적정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 심사를 거쳐 총 15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 기술’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복합촉매를 이용한 질소저감 수처리기술’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낮은 전압의 전기와 촉매를 이용해 물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기술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약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세트리엔지의 ‘열화학적 슬러지 가용화 기술’ 등 4개 기관이 ‘우수 기술’로 선정된 데 이어 경희대 등 10개의 기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 및 연구기관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과 협의해 연구비와 연구개발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협력기금을 이용해 기술개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추후 기술 아이디어 검증에 필요한 건설 현장을 제공해 실용성을 검증하는 한편, 추후 결과를 보고 사업화 기회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 ‘힐스테이트’

올해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힐스테이트’가 1위를 차지했다.

11월 1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2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힐스테이트가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희망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 순위에서 189.67%로 1위를 차지했다. 힐스테이트는 3년 연속으로 브랜드파워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남산’은 평균 59.52대 1로 완판됐고,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에는 12만 명 이상이 청약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현장 붕괴사고 예방 ... 건설사 최초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우리 회사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가설 구조물의 안전사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사고 빈도가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했으나, 지금까지는 주 2회의 수동계측으로 별도의 데이터 분석을 해야 이상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우리 회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

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해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운영 중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HIoS(Hyundai IoT Safety System)와 연동해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고, 자동으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파일럿 현장(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에서 기술의 신뢰성과 사용성을 검증 중으로 2022년부터 안전관리 플랫폼에 탑재해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GROUP NEWS

Genesis House New York- A sophisticated oasis opens

Genesis, a global luxury automobile brand, has announced the unveiling of Genesis House New York, a sophisticated oasis located in the heart of New York City’s Meatpacking District, adjacent to Little Island and the High Line. Opening its doors to the public on Friday, November 19, Genesis House promises to offer extraordinary experiences influenced by Korean culture and community, culinary excellence, and innovative architecture and technology.

Since its launch, Genesis has unveiled a number of concept cars in New York, the city that leads the way when it comes to luxury and trends. The brand’s decision to unveil these models in such a trendy city reflects its confidence in its designs. Opening Genesis House in the same location is another progressive move for the brand - one that once again projects its confidence to the world. From its new oasis in the city, Genesis will showcase its luxurious and innovative brand through various types of experiences.

Designed by the Seoul-based architecture firm Suh Architects, the 46,000-plus square foot (approximately 4,340 square meters) space is audacious in design, progressive in function, and distinctly Korean throughout inspiring the community to gather in a sanc-



tuary that offers nourishment of body and mind. Genesis House’s curated programs will engage New York in cultural conversations about design, food, travel, health, and future mobility - season after season.

“Genesis House is not just a showroom. This is a sophisticated oasis. The place where we share our inspirations at the heart of New York City,” said Jay Chang, Global Head of the Genesis Brand. “It will show the world who we are as a brand: audacious, progressive, and distinctly Korean.”

Genesis House is a custom-designed space that showcases the brand in harmony and balance with its surroundings. High ceilings supported by massive columns and Corten steel, LED lighting, copper highlights and smooth oak flooring immediately communicate an industrial aesthetic that is complemented by eclectic displays of art.



행복한 지구촌을 위한 현대건설의 마음

2021 CSR 결산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엄춰서기’를 할 때도,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우리 회사의 손길은 그칠 줄 몰랐다. 올해 우리 회사 사회 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인원은 1만2724명, ESG 경영에 힘입어 그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1년 현대건설 CSR 활동 이야기. 글=박현희

64명이 모여 2400시간 함께 꿈을 꾸다--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우리 회사 직원, 대학생, 청소년이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이하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청소년 멘티에게 꿈을, 대학생 멘토에게 사회경험 제공과 취업 상담을, 직원 멘토에게는 1020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현대건설의 대표 CSR 활동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24일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7기가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직원 및 대학생 멘토, 청소년 멘티 각 20명, 홍보 서포터즈 4명과 스태프들은 발대식에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7기 봉사단은 학습 및 진로 멘토링, 랜선 토크, 연합 모임 등 올 8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함께 웃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7기 최다 활동 팀은 조현호 직원 멘토-배수빈 대학생 멘토-문재린 청소년 멘티로 구성된 1조 A팀이다. 이들은 청소년 멘티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적성 심리 테스트와 제빵·제과 회사 탐방, 취미 활동을 위한 아트

투어 등 다채로운 경험을 했다. 문재린 멘티는 “멘토님들 덕분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유독 활기찬 활동을 한 팀은 남윤상 직원 멘토-이원근 대학생 멘토-정호웅 청소년 멘티로 구성된 2조 B팀이었다. 이들은 사격, 불링 등 액티비티 활동은 물론, 노숙자 보호시설인 ‘안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원근 멘토는 “청소년 멘티가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윤상 멘토님 덕분에 건축 현장에 처음 방문했다”며 “대학에서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5조 A팀 이정현 직원 멘토-이지은 대학생 멘토-방준호 청소년 멘티와 6조 B팀 강민구 직원 멘토-신준서 대학생 멘토-송우진 청소년 멘티, 9조 A팀 민복기 직원 멘토-최주의 대학생 멘토-손주영 청소년 멘티는 어느 팀보다 학습 멘토링에 열정적이었다. 신준서 멘토는 “온라인으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 만큼 멘티가 사진·영상 촬영을 볼 수 있도록 화면 공유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면서 “멘티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고 소

감을 밝혔다. 40회 이상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 덕분에 청소년 멘티의 학업 성적이 꽤나 올랐다는 후문이다.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의 특별한 장점 중 하나는 우리 회사 직원이 반드시 멘토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직원 멘토의 생생한 직무 경험담과 진로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에게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자산이 된다. 7기로 처음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에 참여해 다음 기수에도 활동하게 된 김혁 직원 멘토는 “7기 활동이 마무리됐지만 정승호 대학생 멘토, 서준영 청소년 멘티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교제할 것”이라며 “다음 차주에도 참여하게 된 만큼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팀의 활약을 담아내진 못하지만,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7기 전원이 이 활동에 온 마음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진로탐색 멘토링 800시간, 학습 멘토링 1600시간 등 총 2400시간 동안 함께 꿈을 키워 나갔다. 7기의 바통을 넘겨받은 8기는 지난 9월 발족했다. 8기 봉사단원들 역시 내년 7월까지 동고동락하며 꿈을 그려 나갈 것이다.

필리핀 현장과 연계한 해외 사회공헌활동!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여전히 팬데믹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따르면 선진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1회 이상 투약)은 70%인 데 반해 개도국은 3%에 불과하다. 더욱이 감염병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데도 기본적인 위생용품이 마련돼 있지 않은 나라가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직접적인 해외 봉사활동이 제한돼 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우리 회사는 2012년부터 필리핀 로드리게스 코르도바 등 낙후된 여러 지역에 학교와 보건소를 세우고, 태양광 랜턴 보급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펼친 인연으로 올해 해외 사회공헌 활동을 필리핀으로 정했다. 특히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현장의 역사(驛舍) 건립 지역인 팜팡가주 아팔릿(Apalit)과 불라칸주 칼람핏(Calumpit)의 취약계층 및 공립 고등학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남북철도 제1공구 현장 직원들은 지난 10월 27일 아팔릿 시장 등 지역 관계자와 이용객 소장 등 현장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 위생키트(마스크, 손 소독제 등) 1430세트와 건강키트(식료품, 생필품 등) 2500세트를 전달했다. 11월 5일에는 칼람핏 지역을 찾아 위생키트 1300세트, 건강키트 2500세트를 선물했다. 오는 12월과 다음해 1월에는 아팔릿-칼람핏 지역의 고등학교 15곳을 방문해 PC 및 학용품 교보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유영주 책임은 “키트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에 행복감과 뿌듯함을 느꼈다”며 “낙후된 이 지역에 CSR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현장과의 협력 관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획한 신 개념 기술·문화교류 해외봉사단 ‘H-컨택(H-CON-TACT)’,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등 누르다 해외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었다. 지구촌이 팬데믹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 회사의 해외 CSR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래 꿈나무와 함께 꿈꾸는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창의교육’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구 과밀화, 에너지 부족,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등 크고 작은 도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 이미 미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가 앞다투어 도시 혁신을 위해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그린 뉴딜’을 공표하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확인해 혼잡도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태양광·지열 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도 있다. 국내 건설사 만능으로 미래 도시 모델을 꾸준히 제시해온 우리 회사 역시 디지털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필요충분 요소는 사람,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10대 청소년의 이해가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청소년이 스마트시티를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교육 CSR 프로그램 ‘재미있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자체 개발한 이 교육은 종로구 지역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5~7일 3일간 진행했다. 사내 스마트시티 전문 연구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7기의 직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한 팀을 이뤄 청소년들과 현재 도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우리 회사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했다. 교구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직접 구현해 보기도 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래 도시 만들기엔 집중할 한 중학생은 “실습 활동이 특히 기억에 남고, 덕분에 스마트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은 아빠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DIY 봉사, 사람나눔기금... ‘비대면’ 활동!

팬데믹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되어야 한다. 외형은 ‘비대면’ ‘언택트’로 달라졌지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은 그대로다. 우리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DIY(Do It Yourself)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차례 진행된 마스크 줄·수제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은 임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손수 만든 마스크 줄과 수제비누, 직접 쓴 응원 메시지와 KF94 마스크 2만 장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복지관을 통해 종로구 소외계층 600여 명에게 배포했다.

사람의 물품 기증 캠페인과 헌혈 캠페인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계절별 성인·아동의 의류와 패션잡화 등 2000벌이 넘는 중고품들은 재판매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헌혈 캠페인 ▶재난 안전도 보급 교육 ▶코로나 키트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 회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인 사람나눔기금 모금에는 1600여 명이 참여해 약 2억3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모금액은 올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우리 회사 국내외 CSR 활동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13,14 스마트시티 창의교육은 이른 강의뿐 아니라 실습 시간도 주었다. 15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7기 수료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6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발족식. 17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카메라 앞에 선 담당 직원들. 18 분기별로 진행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는 우리 회사 ESG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가능한 ESG!

우리 회사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해 10월 전사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발족하고, 올해부터 분기별 협의체 모임을 가졌다. ▶윤리·준법 ▶환경 안전 ▶인재·인권 ▶연구개발 ▶지속가능한 공급망 ▶이사회 투명성 ▶리스크 관리 ▶전략적 사회공헌 ▶기후변화 대응 등을 키워드로 14개 실 19개 팀이 모여 글로벌 ESG 이슈 파악은 물론, 전 세계와 지속가능경영의 속도를 맞추고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애썼다. 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회사의 의지를 공고히 했다.

우리 회사의 ESG 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11년 연속 DJSI World 편입,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에 8차례나 선정된 우리 회사는 올해에도 이 영보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우리 회사 ESG 담당은 “앞으로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산업인프라를 전환하고, 미래 산업 전략과 연계한 신재생·수소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원적 EPC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 개발부터 운영까지 건설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크리에이터’로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올해 우리 회사 ESG 경영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었나.

우리 회사의 ESG 경영 현안이 이사회 및 전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우선 집중했다.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에서 비재무적 리스크 현황과 ESG 개선과제 협의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의 주요 시안으로는 ▶이사회 리스크 관리 강화 ▶탈(碳)산단 정책 선언 ▶윤리준법 규정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협력사 상생 경영 등이며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 내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회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자와도 공유했다.

○ 올해 분기별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가 운영됐다.

ESG 리스크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사에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본부와 지원본부 총 14개 실이 모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세부 분야별로 ▶ESG 리스크 검토 ▶부문별 개선과제 발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협의했다. 덕분에 올해에만 40여 개의 ESG 단기 과제를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 ESG 이슈는 점차 고도화될 것이다. 전사 차원의 관심과 노력, 대응 전략 방향이 중요할 만큼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노력과 역량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 탄소경영에 대한 의지를 ‘탈(碳)산단’으로 보여줬다.

기후위기(Climate Crisis) 시대를 맞아, 우리 회사도 기후위기를 중대 리스크로 인식하고 다양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탈(碳)산단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탈(碳)산단 선언’은 단기적 이윤 추구 관점을 넘어 회사가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친환경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 회사가 추진할 신재생·친환경 사업은 어떤 것이었나.

수소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소·수전해 역학 플랜트 ▶수소 저장·운송 ▶수소 연료 발전 분야 등의 설계 능력과 사업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수소 밸류체인 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우리 회사만의 강점을 극대화해 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과 ESG 담당으로서 포부 언마다.

ESG는 전사 영역의 광범위한 업무이자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 ESG 경영 전환의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부서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최선을 다해 도약한 전 현장 및 본부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인턴형=이영민 책임, 강영민 매니저(IR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현대건설의 기술력, 驚利(경이)로워!

기술특집 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민과 노력으로 조금씩 발전을 거듭한다. 우리 회사 또한 그 ‘누군가’ 중 하나! 가장 편안한 집, 매일 밟는 땅, 삶의 공간을 빚어내는 건설 현장-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을 건설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고객을 행복하게, 환경을 건강하게, 현장을 안전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현대건설의 기술력, 과연 경이로워! 글=이진우

나와 이웃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충간소음 차단 1등급 국내 최고 기술력

뉴스 헤드라인에 ‘충간소음’이 한자리 차지한 지 오래다. 쿵쿵대는 발판치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아랫집, 시끄럽다고 인터폰이 울릴까 노심초사 눈치 보는 윗집. 거실 매트도 깔아 보고 실내화도 신어 보지만 도무지 줄지 않는 소음에 위아래로 눈물겹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내 최초로 충간소음 차단 최고 수준인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선보인 H 사일런트 H의 고성능 완충재에 ‘충격 제어’와 ‘진동 억제’에 특화된 소재를 추가 적용해 ‘충격 고유 진동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기존보다 훨씬 밀도와 강도가 높은 완충층이 충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원리로, 국가공인시험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39dB(데시벨) 성능을 공식 확인했다.

충간소음은 골프공 떨어뜨리는 소리, 식탁 의자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단단한 경량충격음과 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의 발걸음 소리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보통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낮은 주파수의 중량충격음이다. 우리 회사의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39dB는 법적 최소 기준인 4등급 50dB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윗집의 과도한 충격을 아랫집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성능을 말한다.

이번 성과는 특히 현장 실증으로 확인해 더욱 의미가 깊다. 보통 충간소음 테스트는 충격을 모사를 위해 타이어를 땅에 짚는 ‘뱅머신(Bang Machine)’으로 실험실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테스트는 특수바닥 구조를 현장에 직접 시공한 후 위층에서 낸 소음을 아래층에서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실제 거주 공간과 비슷한 여건에서 측정해 얻은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회사는 고객이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술력 또한 지난 10여 년의 노하우에 더해 소음/진동, 구조, 재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충간소음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파트를 만들 때까지 우리 회사는 각고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 변화

기존	H 사일런트 홈 I	1등급 확보 기술
물타 40mm	물타 40mm	Silent Plate 40mm (충격 제어)
기포 40mm	기포 30mm (고강도)	Silent Base 30mm (진동 억제)
완충재 30mm	완충재 40mm (PET+PU 복합구조)	완충재 40mm (PET+PU 복합구조)
콘크리트슬라브 210mm	콘크리트슬라브 210mm	콘크리트슬라브 210mm

충간소음 저감기술 현장 실증 테스트



튼튼한
골조 만들기

고성능 특화
바닥구조

최첨단 소음
예측 기술

충간 소음
알림 시스템

완벽한 시공
관리 품질 점검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한 다ioxin 오염 토양 정화 공법 IP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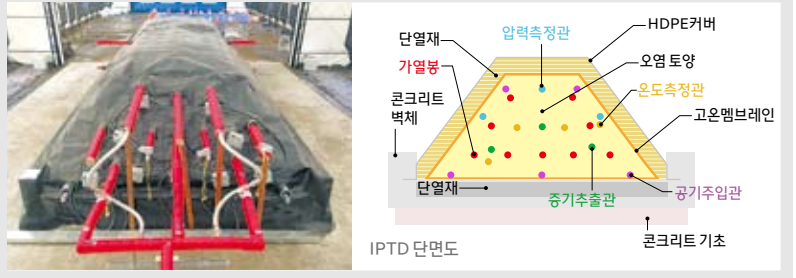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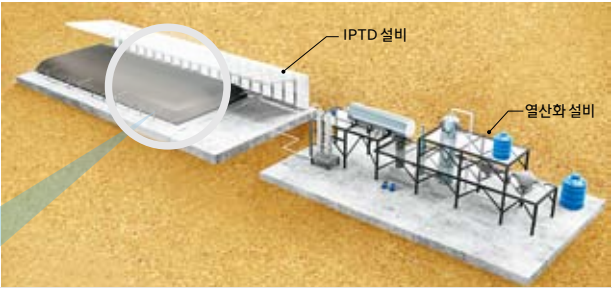
최고의 건설물, 행복한 삶,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터전 아래엔 건강한 땅이 기반하는 법이다. 우리 회사는 토양 정화 기술 연구개발 및 선진 기술 내재화에 매진하며 오염 환경 복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물로 세척하거나 바람으로 토양의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을 포함한 환경정화 기술 인종 3건 및 오염 토양 정화 국내의 특허 25건 등록을 완료한 것은 물론, 신속 정확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해외 선진사와 협업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회사는 캠프 마켓 현장의 약 1만1031㎡ 규모 다ioxin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대규모 다ioxin류 오염 토양 정화 프로젝트인 만큼, 베트남 다낭공화 정화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해외기술협력사와 협업 중이다. 1급 발암물질인 다ioxin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은 열분 방식의 열처리공법(IPTD-In-Pile Thermal Desorption, 이하 IPTD 열처리공법)이다. 중금속 등 열로 추출할 수 없는 물질은 거대한 선타기에 흡과 세제를 넣고 선타하듯 정화하지만 기체화할 수 있는 오염물을 제거할 때는 가열 방식이 효율적이다.

IPTD 열처리공법은 오염 토양에 열을 가해 추출한 다ioxin 가스를 다시 태워 무해화하는 기술로, 오염 토양을 쌓아 만든 흙더미 속에 가열봉, 증기추출관, 공기주입관 등을 수평으로 삽입 설치하고 가열봉을 통해 토양의 온도를 335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토양의 다ioxin이 증기 형태로 분리된다. 이렇게 추출한 증기를 다시 열산화 설비에서 1000도 이상으로 태워 다ioxin을 완전 산화시키면 해로운 성분이 사라진 가스만 배출할 수 있다. 2019년 캠프 마켓 현장에서 진행된 실증실험 결과, 최소 247~최대 1만1468pg-TEQ/g(피코그램, 1조분의 1g)이 넘는 다ioxin 농도가 정화 작업을 거쳐 최소 0.9~최대 97pg-TEQ/g까지 낮아졌다. 이는 유럽의 유아용 놀이터 적용 기준인 100pg-TEQ/g, 스웨덴 주거지역 기준인 20pg-TEQ/g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 모든 정화 과정은 음압 설비를 구축한 밀폐 시설물 안에서 진행된다. 고온 유지가 중요한 공법 특성상 열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 가스 등이 주변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계적 수준의 토양 정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해외로, 더 넓고 건강한 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빅데이터 재해 위험도 예측, 공정 지연 예측, 공동주택 CS 분석 시스템

알하는 사람의 직관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었던 건설 현장. 이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고 풍부하게 쌓아온 시공 경험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 방대한 과거 자료를 한데 모아 기준에 맞게 가공·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해 위험도 예측’이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공하며 축적한 약 390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성 높은 작업을 집중 관리해 사고를 예방한다. AI가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재해, 재해가 발생할 뻔했던 상황을 학습해 공중/사고 유형/현장별로 재해 확률 정보를 제공한다. 수치화된 재해 확률 정보와 안전 관리지침은 작업 담당 현장 담당자에게 메일과 모바일로 전달돼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현장의 ‘공정 관리’에 활용한다. AI가 과거 수행했던 현장의 공정 데이터 약 70만 건을 수집·분석해 공기가 지연됐던 원인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의 ‘3개월 뒤 예상 공정률’과 ‘유사 현장 지연 사유 및 대책’을 알려준다. 공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에는 사전 알람을 발송해 미리 대책을 세워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은 ‘공동주택 CS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적용 중이다. 다수의 시스템에 퍼져 있던 약 800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토대로 현장/공종별로 하자의 원인과 발생 결과를 분석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내고 있다. 또한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사항을 기반으로 ‘부정어 사전’을 구축해 하자 발생 빈도를 수치화함으로써 하자 건수 및 해결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만족도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8년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연구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및 AI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정, 품질, 안전 분야 현장관리 실무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전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골프전설 박세리 “섭외전화 하루 수십 통... 세리 키즈 길 닦아주고 싶다”

피플인사이드 박세리는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 미국 LPGA 투어 첫 해에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국민에게는 ‘위기 극복의 상징’이 되고 전 세계에는 한국 골프의 저력을 보여준 아이콘이 됐다. 2016년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각종 예능 채널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람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박세리를 만났다.

글=김호정 <중앙일보> 기자 / 사진=채널예스

박세리와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여러 회사가 나눠 쓰는 이곳은 그가 2019년 만든 회사 바즈 인터내셔널의 사무실이다. “여기가 편해요. 갓 시작한 회사에 적당하고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 있던 박세리가 쾌활하게 설명했다. 몇몇 사람이 걸을 지나다 박세리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다. 박세리는 1998년 21세의 나이로 미국 LPGA 투어 첫해에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 우승, 같은 해 US여자오픈 우승을 비롯한 4승으로 신인왕까지 수상했다. 2007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LPGA ‘명예의전당’에 입회한 그는 전설적 기록을 쓰면서 골프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 한가운데에 가져다 댔다. 지난 10월 2일에 만난 박세리는 2016년 은퇴 후 맞이한 인생 2막에 대해 “사회생활은 초년생”이라며 “신입사원이 까치발을 하고 파티션 너머를 기웃거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인생 2막을 맞이한 박세리는 영예롭던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분명하다. “후배들의 길을 내가 걸었을 때보다 좋은 길로 만들어 놓겠다. 언젠가 스포츠 학교를 만들어 모든 종목 선수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 그는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호화로운 집, 남다르게 통 큰 선물 등으로 ‘리치 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만 넷이고, 광고·강연 제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섭외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Q ‘골퍼가 안 됐다면 사업가’라 했는데 정말 사업가가 됐다. 회사 상황은 어떤가.

골프 관련 콘텐츠 제작, 제품 판매,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더 이상 현역도 아닌 ‘박세리’ 브랜드 하나로 시작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살면서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덕인지 좋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4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규모도 꽤 커졌다.

Q 최정상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 후 사업도 순조로운 데다가 방송 출연으로 사랑까지 받고 있다.

직원 전원이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을 만큼 신경 쓸 일도 많고 어렵다. 다만 인상 쓰고 있지 않으려 한다. 그런다고 일이 풀리지는 않으니까. 운동할 때도 그랬다. 심지어 트로피를 안고 세리머니까지 끝내고도 호텔로 들어가면서 ‘그 홀에서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했을까’ 생각했다. 내가 최고라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Q 선수 생활을 하며 은퇴 이후를 상상이나 했는지.

선수 생활 도중에도 언젠가 은퇴한다는 생각을 늘 했다. 특히 은퇴 3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할 일 중 첫 번째가 내 이름을 건 브랜드였다. 의식주 전부에 관심이 많았고, 또 교육과 관련한 꿈이 있었다.

Q 실제 은퇴 후의 생활이 계획했던 것과 얼마만큼 비슷했나.

시작이 쉽지 않았다. 골프는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시작해서 끝나고 나만 돌보면 됐지만, 사회로 나오면서는 바뀌어야 했다. 누구를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만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운동을 하면서 시간 강박관념이 생겼는데 그게 참 힘들었다.

Q 시간 강박관념이라면?

20년 넘게 알람 시계보다 먼저 눈을 떴고, 지금도 그렇다. 경기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지금도 어떤 약속이든 일찍 움직이고, 먼저 도착해 있어야만 한다. 또 미팅이 정해진 시간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불안하다. 선수 시절의 습관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중이다.



1998년 US오픈 연장전에서 박세리가 해저드 옆에서 친 ‘맨발의 투혼’ 장면.

Q 영광스럽던 20·30대를 지나 새로운 인생이다. 언젠가 더 행복한가.

그때는 영광인지도 몰랐다. 대회 준비, 대회 끝, 이동, 다시 대회 준비가 반복됐다. 한 치의 여유도 없었다. 기쁨·슬픔·아픔을 다 경기장에서 겪었고, 모든 추억이 골프로 시작하고 끝났다.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이다. 기대감과 걱정이 겹치지만 멈춰 있진 않으려 한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닌 듯하다.

Q 선수 시절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고 들었다. 지금의 박세리를 지탱하는 꿈은 무엇인가. 그림은 크다. 교육과 훈련이 같이 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골프뿐 아니라 타 종목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마음에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본이다.

Q 개인 운동인 골프를 하면서 ‘주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뭘까.

내 꿈을 꾸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누군가의 꿈이 됐더라.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1세대라고들 하는데, 2세대가 없었으면 내 삶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다. ‘세리 키즈’ 덕에 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됐고 할 수 있었다. 이제 후배들의 길을 닦아주고 좋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능 섭외도 많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는 방송으로 골라서 출연하고 있다.

Q 골프는 종종 치는지.

골프는 멀리한다(웃음). 희한하게 미련도, 그리움도 없다. 후회 없이 은퇴하리라는 다짐이 그대로 지켜졌다.

경제학자가 추천하는 인문학 서적

인문학칼럼 경제학과 인문학은 사실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의식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학문이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많은 개념이 사실 인간 본성과 관련돼 있다. 인문학의 대표 학문인 신화, 역사, 문학, 문화, 철학 등 역시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사상과 행보에 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 경제학자들이 인문학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글=박정호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저자 / 사진 제공=각 출판사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과
미국현대도시건축
서정일 |
SPACETIME

로버트 올리지 텍사스 A&M대 교수는 꽃이나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창의력 차이를

실험했다. 그 결과 꽃이나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남성 직원은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 증가했고, 여성 직원 역시 더욱 유연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체스터대의 앤드루 엘리엇 연구팀은 색깔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초록색에 자주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초록색을 긍정적이고 편안한 색으로 받아들였으며, 연구팀은 이것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인식하든, 못하든 주어진 공간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공간은 사람들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갖는다. 공간을 통해 유도되는 행동은 간헐적이고 일회성인 행동(action)이나 활동(activity)이 아닌 일정한 패턴을 띠고 지속적인 양상을 갖고 있는 행태(behavior)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통의 도시』는 공간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도서이다.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사람 루이스 칸의 작품 세계를 통해 공간이 인간의 삶의 행태에 미치는 과장을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현대 건축사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화두로 삼아 해당 건축물이 도시와 도시민에 미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건축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자 했던 20세기 최고 건축가의 고민을 엿보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예술의 사회경제사
이미예 | 열린책들

예술 활동과 예술품은 일견 경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경제의 뒷받침 없이 문화예술의 발달도 어렵다. 『예술의 사회경제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됐다. 교회의 스폰서십(Sponsorship)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근대 문화는 문학을 시발점으로 미술, 음악 순으로 발전했다. 특히 음악이 마지막으로 발전한 이유는 그 장르의 특수성에 있다. 미술과 문학에 비해 음악을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당시 미술시장은 소규모 그림 위주로 형성돼 있었고, 문학시장 역시 책 한 권 정도 구매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음악은 일반 시민이 즐기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컸다. 이처럼 예술은 독립적,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요 덕분에 발달할 수 있었다. 또 예술 작품 역시 예술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적인 명화, 조각품, 음악 등도 모두 소비재일 수 있음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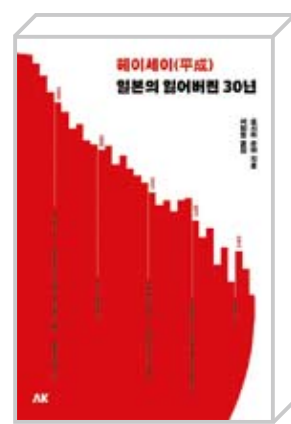


스위스 메이드
R. 제임스 브라이딩 |
에피파니

스위스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스위스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 듯하다. 이 책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스위스가 ‘제조 강국’이 됐는지를 소개한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는 달리, 끊임없는 외침(外侵)에 시달려야 했던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다. 스위스의 조상은 켈트족의 일족인 헬베티아인들이다. 헬베티아인들이 지금의 스위스 땅에 자리 잡은 시기는 기원전 15세기께로, 독일 남부 지역에서 내려와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스위스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헬베티아인들은 기원전 58년 로마제국에 흡수돼 서기 400여 년까지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455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는 헬베티아인 이외의 다양한 인종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알레마니족이 스위스 북부에, 로마화된 부르군트족이 서부, 랑고바르트족이 남부에 각각 정착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스위스가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에도 스위스는 계속해서 외침에 시달린다.

스위스가 많은 나라로부터 점령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위스를 거쳐야 하고, 반대로 독일에서 남부 지역으로의 교역 통로 역시 스위스를 지나가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 장악은 당시 교역에 있어 커다란 힘을 갖게 됨을 의미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침략만 받아 왔던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와 정밀공업 회사들이 즐비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본서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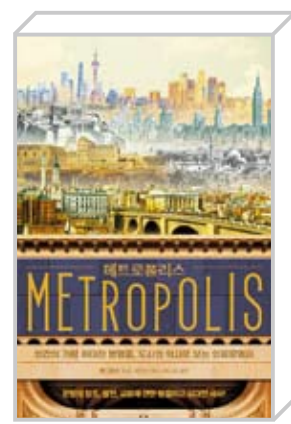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시미 순야 |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일본을 빼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과 영

감을 줬다.

최근 들어 우리가 일본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조금 달라졌다. 과거에는 일본의 산업기술 육성 전략이나 주요 산업 생태계 조성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양극화 등 일본 경제의 어두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경로를 뒤따라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떠한 현상이 전개됐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제사 분야의 도서임에도 국내에서 적지 않은 반응을 얻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일본을 통해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메트로폴리스
벤 윈슨 |
매일경제신문사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사람들은 북적되고 생활도 팍팍한 도시 생활을 왜 선호하는 것

일까? 이 서적은 우리 인류가 고대시대부터 도시를 형성해 모여 살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도시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면과 함께 형성 배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이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변천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해 빈민촌에서 열악한 생활을 함에도, 도시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나은 선택일 수 있음을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제시해 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도농지역 거주자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 요소 중 하나는 우리나라 도시들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점이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송도 등이 형성될 때 어떤 지향점을 담았는지 등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도 느낄 수 있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OTT 춘추전국시대! 나에게 맞는 플랫폼은?

문화칼럼 OTT(Over The Top·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춘추전국 시대에 소비자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여기 있는 콘텐츠는 저기 없고, 저기에 있는 콘텐츠는 또 다른 플랫폼에 없다 보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OTT 플랫폼을 찾지 않으면 그야말로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정기구독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나에게 찰떡인 플랫폼을 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의 취향을 잘 알 필요가 있는 법! 각 OTT의 강점을 비교해 나와 잘 맞는 플랫폼을 찾아보자. 글=황정은 자유기고가



N **미드 좋아해? 그렇다면 넷플릭스**

자타 공인 현 OTT 플랫폼 중 최강자다. 1997년 비디오와 DVD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기업 이던 넷플릭스는 99년에 본격적으로 ‘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며 15.99달러의 요금으로 DVD 3~4장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접하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준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넷플릭스다.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누적 유료 회원 수 2억1400만 계정을 보유한 글로벌 1위 OTT 플랫폼으로, 2016년 국내에 진출한 후 지난해 415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글로벌 1위인 만큼 콘텐츠도 다양하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자체 제작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종이의 집〉 〈기묘한 이야기〉 〈킹덤〉 등의 작품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20세기폭스, 지브리 스튜디오 등 대형 영화사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콘텐츠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흥행한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앞으로 오픈할 〈지옥〉 〈고요의 바다〉 〈소년 심판〉 등이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 콘텐츠!

하우스 오브 카드 “정치 드라마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 8년이 지난 지금 봐도 세련됐다.

마인드 헌터 “프로파일러의 시초” 어떤 것의 ‘기원’을 중요시하는 넷플릭스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

지옥 “감독의 상상력이 어떻게 표현될지” 연상도 감독의 신작. 웹툰으로 먼저 주목받은 이야기다.

W **취향 저격 콘텐츠 추천 왓차**

넷플릭스를 바짝 뒤쫓는 OTT는 단연 왓차가 아닐까? 왓차는 2011년 설립된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회사 왓차피디아(구. 왓차)가 출시한 OTT 서비스다. 왓차피디아는 게임 개발자이던 박태훈 대표가 ‘자동화’ ‘개인화’ ‘추천’을 키워드로 개시한 영화 리뷰 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화를 보고 매긴 별점 데이터가 무려 6억2000만 개로 네이버 영화 별점 데이터의 50배가 넘는다. 왓차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취향 저격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 사용자가 콘텐츠에 매긴 평점과 다른 이용자들의 평점을 분석해 취향이 비슷한 콘텐츠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찾기 귀찮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플랫폼이다.

왓차는 넷플릭스 못지않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드라마, 예능 등의 콘텐츠는 물론 고전 및 인디 영화에 특화돼 있어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감성’이 그리운 이들에게 찰떡이다. 더구나 미국 HBO의 〈체르노빌〉, BBC의 〈킬링 이브〉 등을 단독 공급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콘텐츠들은 왓차의 AI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도입해 성공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 애플 TV에서도 왓차를 만날 수 있다.

왓차에서는 이 작품!

왕좌의 게임 & 해리포터 “무슨 말이 필요해” 이제는 클래식이 된, 판타지물의 대명사.

킹덤 “어른의 맛” 〈이터널 선샤인〉 미셸 공드리 감독 특유의 감성과 짐 캐리의 웃음이 만났다.

빅 리틀 라이즈 “니콜 키드먼부터 메릴 스트립까지” 캘리포니아 부촌의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는 놓칠 수 없어 웨이브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의기투합해 만든 플랫폼이다. SK텔레콤의 옥수수(oksusu)와 지상파 3사 콘텐츠 연합 플랫폼 폭(POOQ)이 결합해 2019년 9월 론칭했다. OTT 대란에 뛰어들어 웨이브는 앞으로 약 3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웨이브는 먼저 지상파 3사에 방영되는 드라마에 투자한 후 OTT로 독점 VOD를 제공받는 비즈니스 방식을 취한다. 덕분에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 케이블채널, 영화사,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 등 대부분의 주요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약 30만 편의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도 웨이브 흥행 요인 중 하나다. 국내 콘텐츠 비중이 높은 이유 때문인지 타 OTT에 비해 2030 세대보다 4050세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왓차 플레이와 함께 애플TV에 탑재돼 애플 기기 동기화를 통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웨이브에서는 중드 어때?

금의지아 “막장 요소가 살짝 가미된 대륙의 드라마” 30부작이 넘어가는 대작으로 사극에 로맨스를 곁들였다.

의천도룡기 2019 “고전 리메이크의 잘된 예” 스킵 없이 봤다는 후기가 많을 정도로 몰입도와 재미 둘 다 잡았다.



T **한한예능은 여기에 다 있다 티빙**

CJ E&M에서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로 tvN, Mnet 등 CJ E&M 계열 방송사와 JTBC 채널을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만과 일본 등에 진출할 계획으로 K-콘텐츠로 해외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CJ E&M의 콘텐츠 중 예능이 특히 강세인 만큼 티빙은 그동안 예능 분야에서 탄탄한 이용자를 구축해 왔다. 나아가 이러한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떠나지 않도록 영화 〈서복〉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스펀 오프(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새롭게 파생된 작품)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티빙에서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펴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삼시세끼〉 〈신서유기〉 등 흥행 프로그램이 티빙의 강점이다. 지난해 10월 독립법인 출범 후 누적 유료 가입자 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주 타깃층인 20~30대 뿐 아니라 10대 가입자가 268%, 중장년층 유료 가입자도 단기간에 늘었다.

티빙에서는 이 예능!

환승연애 “오직 티빙에서만!” 다양한 이유로 이별한 커플들이 모여 지나간 사랑을 되짚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신강림 “강호동과 신동엽, 두 MC의 조합만으로도 얼마나 유쾌할지” 티빙의 오리지널 골프 예능.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포츠 마니아들 모여라! 쿠팡 플레이

이제 쿠팡이 콘텐츠 배송에도 나섰다. 2020년 7월 싱가포르의 OTT 서비스 ‘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OTT 시장에 뛰어든 쿠팡 플레이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장 큰 차별점은 스포츠 콘텐츠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3월 SPOTV NOW를 통해 무료 중계하던 토트넘 핫스퍼 경기가 쿠팡 플레이로 독점 전환되면서 많은 축구팬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국가대표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의 리그 경기를 디지털 생중계 하고 미식축구 팬들을 위해 NFL 리그 경기를 매주 3경기씩 생중계로 편성하고 있다. 축구팬들 사이에선 ‘썸 축구팬이라면 쿠팡 플레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외에도 교육 콘텐츠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해커스, 대교, YBM, EBSLang, BBC 등의 콘텐츠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쿠팡 플레이에서는 스포츠를!

NFL “NFL 리그 진입 가능” 미식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런 희소식이 또 있을까. 잘 모르는 이라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경기인 만큼 한번쯤 즐겨보는 것을 추천!

해외축구 “방구석 축구 여행” 좋아하는 축구선수의 해외 경기를 찾아본다면 보전은 잘 챙길 수 있을 듯!

디즈니는 못참지! 디즈니+

드디어 월트디즈니가 국내 OTT 시장에 상륙했다.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등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의 여섯 개 핵심 브랜드로 무장한 채 국내 이용자와 조우했다. ‘디즈니는 못 참는’ 충성 고객이 두터운 만큼 빠른 성장세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즈니+의 경쟁력은 뭐니뭐니 해도 1만6000편에 달하는 방대하고 압도적인 콘텐츠. 덕분에 디즈니+는 넷플릭스의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등 디즈니·픽사의 애니메이션,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시리즈,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모두의 동심을 흔들고 있다.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는 것이 기존 OTT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자 디즈니+만의 강점.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연령층이 접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은 만큼 시청 제한 기능도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며, 무엇보다 최대 10대의 기기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디즈니+에서는 역시!

완다비전 “스칼렛 위치의 탄생기” 마블이 그리웠던 마블 러버들, 지금 바로 디즈니+로.

스타워즈 시리즈 “I’m your Father” 시리즈 전편을 디즈니+에서 만날 수 있다.

애플의 명성을 이어갈 애플TV+

애플TV+도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OTT 대전에 참여하는 애플TV+는 양보다 질에 더 초점을 맞춘 듯하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일절 취급하지 않고 오직 자체적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굳세다. 결국 다른 OTT 플랫폼에 비해 콘텐츠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인지 월 구독료 역시 6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애플TV+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애플 기기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삼성이나 LG 스마트 TV, 플레이스테이션5 등 애플TV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TV가 아니라면 ‘애플TV 4K’ 셋톱박스를 구매하면 된다. 애플TV 앱에 접속한 후 다른 플랫폼의 콘텐츠도 통합 검색할 수 있어 왓차, 웨이브, 디즈니+ 등을 구독하고 있다면 채널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애플TV+ 오리지널 콘텐츠 외 영화도 대여하거나 구매해서 즐길 수 있다.

애플TV+ 오리지널, 기대해볼까?

DR.브레인 “애플TV+의 첫 한국어 오리지널 시리즈” 영화 〈달콤한 인생〉의 김지운 감독과 〈기생충〉 이선균 배우의 컬래버레이션 작품.

SEE “소재부터 새로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류가 시력을 잃은 시대. 시력을 가진 자가 탄생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 애플TV에서는 이미 유명세를 치른 작품.



잡학다식을 위한 상식 퀴즈

알면 알수록 '잡학다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제·사회 상식. 알기 전까지는 한없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최근 뉴스와 기사에 자주 등장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 퀴즈를 준비했다. 글=강은비

성명

사원번호

OX 퀴즈

1.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2. 팩(Pack) 저널리즘은 오락거리만 있고 정보가 전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뉴스를 지칭한다.
3.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이뤄지며,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다.
4. 디커플링은 두 나라의 환율·주가 등이 함께 오르내리는 현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때 사용하는 용어다.

주관식 ※QR코드 퀴즈!

1.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집단 공헌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초성힌트 : ㄱㅊㅁ 효과)
2.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초성힌트 : ㄹㅊㅂㅈ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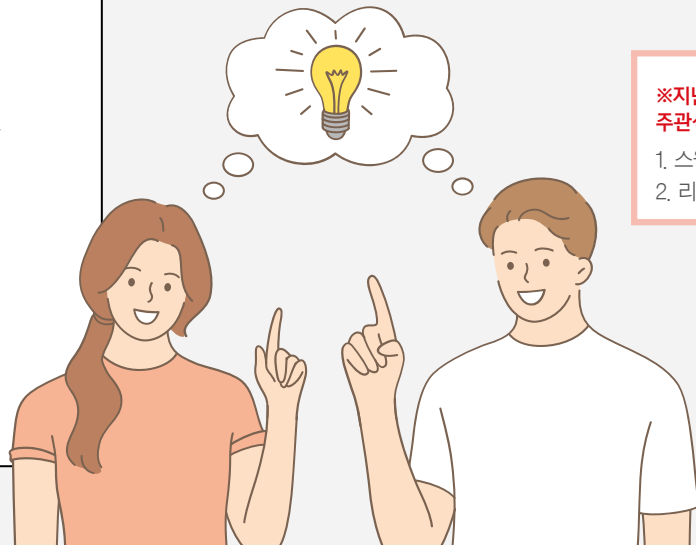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객관식

1.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대출 방식은 무엇인가?
① 모기지론 ② 역모기지론 ③ 서브크레디트론
2. 현대인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 또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는?
① 틴들(Tyndall) 현상 ② 델린저(Dellinger) 현상 ③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3.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더하는 등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① 리뉴얼 ② 업사이클링 ③ 리사이클링
4. 이 현상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지만, 다른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심각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말하는 이 용어는?
① 퍼펙트 스톰 ② 허리케인 스톰 ③ 버블 스톰
5. 경기 회복을 위해 시행한 양적완화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가는 조치를 말한다.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경제용어는 무엇인가?
① 페이퍼링 ② 테이퍼링 ③ 케이퍼링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 ㊁ / ㊂ / ㊃ / ㊄ / ㊅ / ㊆ / ㊇ / ㊈ /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 ㊲ / ㊳ / ㊴ / ㊵ / ㊶ / ㊷ / ㊸ / ㊹ / ㊺ / ㊻ / ㊼ / ㊽ / ㊾ / 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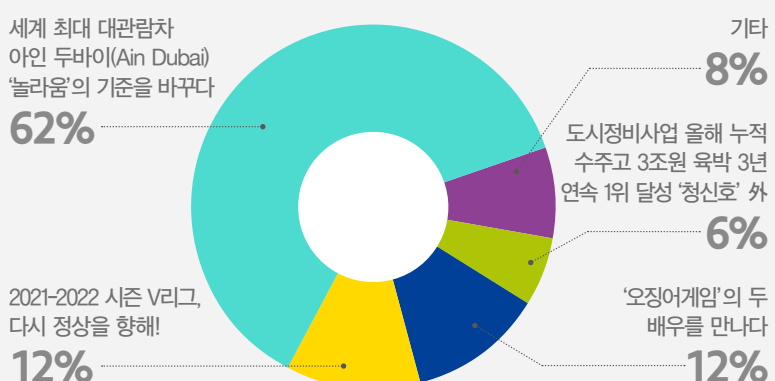
※지난 호
주관식 답
1. 스윙
2. 리베로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Q 406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11월 26(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상상력의 높이로 이동하다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이기에
현대건설이 더 큰 상상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아인 두바이 (Ain Dubai)
현대건설이 시공한 257.5m 높이의 세계 최고 회전 대관람차